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중심으로

손 대 권*·안 슬 기**

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내외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6년 2월 7일부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 9일까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주된 보도 내용 및 그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은 한국 내 사드 반대여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적으로 고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였고,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핵보유국의

*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medess@hanmail.net

**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babju07@gmail.com

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사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북한, 보도행태

I. 서론

본 연구는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THAAD, 이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북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파악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안보 위협을 느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월 7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8일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방어력 및 억지력이 충분치 못하므로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 결정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이 한 차원 더 높은 대북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¹⁾ 반

1)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긍정하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연구로는 박휘락(2016), 박근재(2016), 홍규덕(2015), 김태우(2015), 우정엽(2015) 등이 있다.

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사드의 방어범위를 피해 남한에 타격을 입힐 수단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보며, 따라서 한반도 내의 사드는 미중 혹은 미러 간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저해하여 동북아 안보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²⁾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드의 군사안보적 효용성 유무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³⁾ 그 결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의 실질적 대상 국가인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⁴⁾ 이는 상당 부분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의 근본적 목적이 북한에 대한 방어력 및 억지력의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요 언론인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드 관련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부정하거나 사드의 한반도 도입이 야기할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정옥식(2003), 고영대(2015), 홍순도(2016) 등이 있다.

3) 사드가 동북아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김홍규(2016a; 2016b), 박병광(2016), 이지용(2016), 김한권(2016), 김진호(2016) 등이 있다.

4)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그 목적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Kim 2016).

한의 보도행태를 파악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⁵⁾ 북한 언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당원과 북한 인민만을 구독층으로 하는 『로동신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대내선전매체인 『로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북한 보도의 전략적 함의를 보다 더 다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및 연구의 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3절에서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기사를 첫째,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둘째, 해외 사드 반대 의견에 대한 기사, 셋째, 사드 배치 반대 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기사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의 보도 현황 및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토대로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고, 5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연구방법 및 범위

일반적으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을 교화, 조직, 동원할 목적으로, 당과 정부가 일체의 커뮤니케이

5) 북한의 언론은 일차적으로 선전과 선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북한에 대한 분석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극단적 폐쇄성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1차 자료가 몹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최소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두 매체를 통해 북한의 사드 배치 대응전략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한 분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 수단을 독점한다(Friedrich & Brzezinski 1961, 9-10). 북한의 정치체제 역시도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주의 유일정당(totalitarian unipartism)체제로서,⁶⁾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언론 역시도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나 권력층의 의지를 대변하여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⁷⁾ 실제 북한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과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평양출판사 1978, 292). 이러한 특징은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례로 김일성은 언론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언급하며 북한 언론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규정하였다(김일성 1980). 김일성 시기 이후에도 북한 언론의 선전선동 기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지도부는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을 통해 북한 언론의 기능을 첫째, 사회구성원의 김일성주의자화, 둘째, 사회의 공산주의 물질요새화, 셋째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하였다(김정일 1985). 즉, 북한의 언론은 주체사상의 강화, 체제의 유지, 주민들의 사상교화와 동원, 조국통일과 대남혁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

6)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전체주의 유일정당 체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Yang 1994, 22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언론은 로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철저히 검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89, 425-426).

다.8) 그러므로 북한 언론은 북한의 대내적 통제방식과 대외적 전략을 알려주는 중요한 창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그 보도행태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2016년 2월 7일부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 9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국제사회는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9) 한미 양국은 중·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사드 배치를 최종적

8) 알튀세(Louis Althusser)는 국가가 그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군대, 경찰, 감옥 등의 강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교육, 언론, 종교, 문화 등의 비강제적 수단 역시도 동원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자와 같이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억압적 국가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라고 하였고, 후자와 같이 사상과 담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고 하였다(Althusser 1971, 127-186).

9) 대표적인 사례만을 살펴보면, 중국은 2월 11일, 12일, 24일, 3월 9일, 7월 10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월 15일과 17일, 3월 11일, 7월 8일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월 23일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2월 29일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가, 3월 3일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4월 1일과 6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월 5일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국(孫建國) 부참모장이, 그리고 7월 11일, 7월 13일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각각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러시아는 2월9일 이고리 모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무차관과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 통해, 3월 3일 비탈리 추르킨(Vitali Churkin)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를 통해, 4월 13일과 5월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6월 5일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국방차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 중 양국이 공동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3월 7일 개최된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양국이 처음으로 사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한 것에 이어, 3월 11일과 4월 29일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사드 반대 입장을

으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2016년 2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간이며, 또한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실험, 6월 23일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0호 발사 실험을 거쳐,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기간이다. 동시에 이 기간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미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변화한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북한 언론을 분석하는 것은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과 그 함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기간 동안의 북한 언론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언론은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기술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둘째, 북한이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하는 국가와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은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분석의 대상으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을 선정하였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 각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 및 선동 매체이다. 1945년 11월에 창간된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대표 기관지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저작집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5월 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연설문 등과 함께 북한의 이념, 사상, 정책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 자료 중 하나이다. 1981년 4월 2일, 김일성이 직접 “모든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씩 의무적으로 『로동신문』사론설을 독보하는 제도를 세워야한다”고 교시한 후(김일성 1990, 65), 조선로동당은 『로동신문』을 통해 당원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다수의 국내연구자들은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을 분석하고자 시도해왔다.¹⁰⁾ 『로동신문』의 중요한 특징은 그 배포처와 독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의 공식 기관지로서 『로동신문』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당에서 정한 배포처에서 당원에게 한정하여 배포한 후, 주요 기차역과 지하철역에 게시되어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NK News 2015). 즉,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당원들과 북한 인민들을 그 구독자로 하는 특수한 선전매체인 것이다.

반면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4월 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중국 선양(瀋陽)시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대외선전선동 매체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편이며,¹¹⁾ 그 결과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

10) 그 중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정책목표 변화를 분석한 이항동(1997)의 연구,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한 정성임(2009)의 연구, 장기간에 걸친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김용현(2003)의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한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도와 행태를 분석한 김지동·한관수(2013)의 연구, 김정일 정권의 북 러 관계를 연구한 홍민식(2001)의 연구, 북한-중국-러시아 삼각관계를 연구한 백인하 외(2001)의 연구 등도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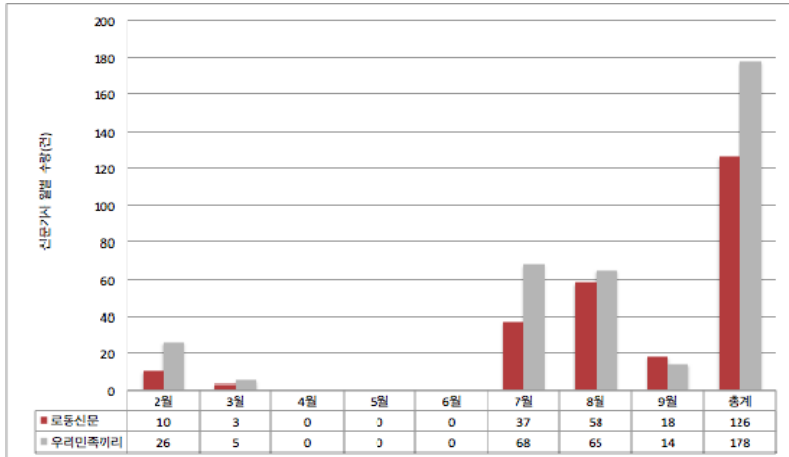
11) 북한의 주요 언론 매체와 그 창간일을 살펴보면, 1945년 11월에 창간된 『로동신문』을 시작으로, 1946년 4월에 창간된 『청년전위』, 1946년 6월에 창간된 『민주조선』, 1948년 4월에 창간된 『교육신문』, 1956년 12월에 창간된 『문학신문』, 1957년 6월에 창간된 『평양신문』, 1972년 8월에 창간된 『통일신보』, 1965년에 창간된 『The Pyongyang Times』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지도부가 인터넷의 발달을 수용하여 매우 최근에 신설한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송승섭·정종기 2014, 240).

한을 연구하고자 시도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우리민족끼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¹²⁾ 하지만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다른 언론에 비해 대외적 선전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의 대외·대남 통일운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은 이 매체의 대외적 성격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북한 언론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민족끼리』는 완벽하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 역시도, 북한 내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Internet World Stats 2016), 이 매체가 북한 국내보다는 대외적 선전과 선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동신문』 홈페이지(<http://www.rodong.rep.kp/ko/>)가 조선어 외에 영어와 중국어 번역만을 제공하는 데 반해, 『우리민족끼리』의 홈페이지(<http://www.uriminzokkiri.com/>)는 조선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 번역을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대외선전 매체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선전매체인 『로동신문』과 대표적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보도행태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12) 북한의 언론을 통해 북한사회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 『로동신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연구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13)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The Pyongyang Times* 역시도 북한의 대표적 대외선전 선동 매체이다. 그렇지만 *The Pyongyang Times*는 주간지라는 점에서 일간지인 『로동신문』과의 비교분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총 수량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본 연구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기사들을 전수조사한 후, 이 중 사드와 관련된 기사들만을 선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기간 내 두 언론은 각각 총 7,702건과 3,142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월과 9월을 제외하면 『로동신문』은 월 평균 1,098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우리민족끼리』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454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 동안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는 사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사가 각각 204건과 300건이 보도되었다. 이 중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룬 기사들로서, 『로동신문』의 경우 126건의 기사가, 『우리민족끼리』의 경우는 178건의 기사가 이에 해당되었다.¹⁴⁾ 이를 월별

14)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4월에서 6월 사이,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모두에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다가 7월부터 관련 기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북한의 또 다른 대표적 매체인 『통일신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두 매체 모두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7월과 8월에 각각 37건과 58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였고,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78건, 65건의 관련 보도를 실었다. 연구기간 내에 발행된 전체 기사 수는 『로동신문』이 『우리민족끼리』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데 반해, 사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우리민족끼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의 대외선전선동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사드 배치 관련 북한의 보도행태 분석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상술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서 보도한 사드관련 기사들을 첫째,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둘째, 해외 사드 배치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셋째,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기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사 수는 210건, 53건, 41건이었으며, 각각 69퍼센트, 17퍼센트, 13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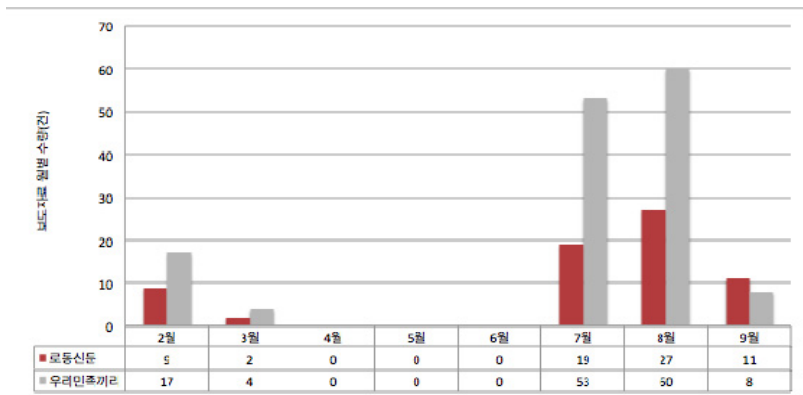
1.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 중, 가장

되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이는 해당 시기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상황과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68건, 『우리민족끼리』는 142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는 전체 사드 관련 기사 중 각각 53.9퍼센트, 79.7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림 2>를 바탕으로 월별 건수를 살펴보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7월을 기점으로 『로동신문』은 7, 8, 9월에 각각 19건, 27건, 11건을,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53건, 60건, 8건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한 가지 주시할 사항은, 한국 언론 매체들을 인용한 기사들은 『로동신문』보다 『우리민족끼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민족끼리』는 『로동신문』보다 2배 이상의 지면을 한국의 사드 반대 여론을 소개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로동신문』이 주로 해외의 사드배치 반대의견들을 보도 및 인용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특징이었다.

<그림 2>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한국 내 사드 배치 동향 및 반대여론 관련 기사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두 매체에 게재된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여론에 대한 기사 내용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기사들이 대부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의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의 이름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인용한 반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매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세력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하기보다는 시위에 참여한 인원수 혹은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구호들과 폭력적인 시위행위 등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한국 내 보도 자료들과는 다르게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의 기사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시위를 “대중투쟁”이나 혹은 “항의투쟁”이라고 언급하며 격렬히 반대하는 여론과 시민들의 모습을 부각시킨 부분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을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언급하며 지지하는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을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16/07/24).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 1>에서 살펴보듯이,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중앙 종합 일간지, 인터넷 언론사, 북한 전문 소식지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기사와 발표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 중 한국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의 기사를 총 15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으며, 『통일뉴스』와 『한겨레』의 기사들도 각각 7회 인용하였다. 이는 전체기사 중 24.5퍼센트와 11.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인용된 언론매체들은 대체로 진보성향을 가진 매체에 편중되어 있었고, 보수성향 매체를 인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중 한국 언론사 월별 언급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언론사 이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민중의소리	1	1	-	-	-	5	6	2	15
통일뉴스	-	-	-	-	-	2	3	2	7
한겨레	2	-	-	-	-	1	3	1	7
연합뉴스	-	-	-	-	-	1	4	-	5
경향신문	1	-	-	-	-	2	1	-	4
CBS방송	-	-	-	-	-	4	-	-	4
오마이뉴스	-	-	-	-	-	1	2	-	3
뉴스1	-	-	-	-	-	-	3	-	3
민플러스	-	-	-	-	-	-	1	1	2
민족일보	1	-	-	-	-	1	-	-	2
뉴스스	-	-	-	-	-	-	2	-	2
기타 ¹⁵⁾	-	1	-	-	-	2	4	-	7
총계	5	2	0	0	0	19	29	6	61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소개하며 인용한 시민단체들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단체는 총 52건이 인용된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였으며,¹⁶⁾ 그 뒤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반대 활동이 각각 24건과 19건 보도되었다. 이는 전체기사 중 각각 27.5퍼센트, 12.6퍼센트, 10퍼센트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상세히 서술하여 간접적으로 이에 동의를 표하였다. 반

15) 연구대상 기간 중 두 매체에 한 차례 언급된 한국 언론사들은 기타항목으로 일괄 합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경북일보, MBC방송, 자주시보, 참세상, 노동과세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16)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지역이 성주군으로 결정 된 후 출범한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7월 16일 확대개편한 단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될 경우, 이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에 포함하여 합산하였다.

면에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 중 한국 시민단체 월별 언급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시민단체 이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사드성주배치반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	-	-	-	-	28	20	4	5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5	2	-	-	-	8	6	3	2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	-	-	-	-	6	9	2	19
민주노총	2	-	-	-	-	1	7	2	12
전국농민회연맹	2	-	-	-	-	2	1	-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1	-	-	-	1	1	-	5
한국청년연대	-	-	-	-	-	3	1	-	4
한국진보연대	-	-	-	-	-	2	2	-	4
천주교주교회의	-	-	-	-	-	4	-	-	4
경남진보연합	1	-	-	-	-	2	1	-	4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	-	-	-	-	-	4	-	4
여성단체연합	-	-	-	-	-	-	1	2	3
전국여성연대	2	-	-	-	-	-	1	-	3
기독교교회협의회	-	-	-	-	-	1	2	-	3
참여연대	-	-	-	-	-	1	1	1	3
전쟁반대 평화실현	1	1	-	-	-	-	1	-	3
한국노총	2	-	-	-	-	-	-	-	2
민중연합당	-	-	-	-	-	2	-	-	2
환경운동연합	-	-	-	-	-	2	-	-	2
경남시민사회연대회	1	-	-	-	-	-	1	-	2
전국대책회의	-	-	-	-	-	-	2	-	2
전국학생행진	-	-	-	-	-	2	-	-	2
노동자연대	2	-	-	-	-	-	-	-	2
사회진보연대	2	-	-	-	-	-	-	-	2
반전평화연대	2	-	-	-	-	-	-	-	2
기타 ¹⁷⁾	1	2	-	-	-	7	8	1	19
총계	27	6	0	0	0	72	69	15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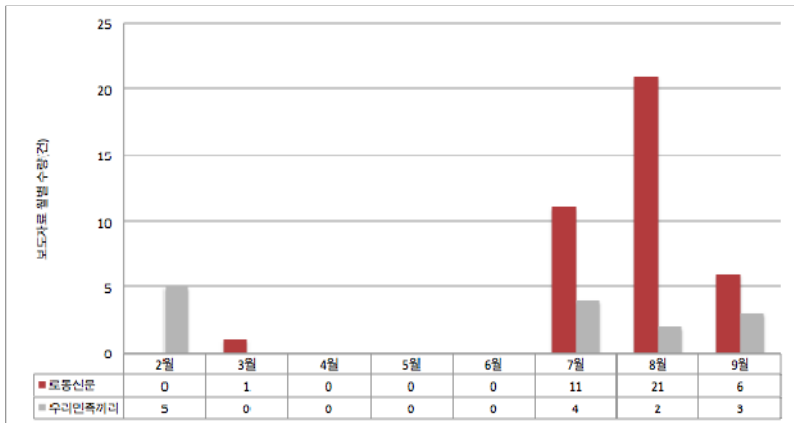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17) 연구대상 기간 중 두 매체에 한 차례 언급된 한국 시민단체들은 기타 항목으로 일괄

2. 해외 사드 배치 반대 의견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사드 관련 기사들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해외의 반대 여론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로동신문』은 전체 기사 중 30.9퍼센트에 해당하는 39건의 기사를, 『우리민족끼리』는 7.8퍼센트에 해당하는 14건의 기사를 통해 해외의 사드 반대 의견들을 보도하였다. 특히, 북한은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로동신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외의 사드 반대 목소리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2월~6월까지의 기간에는 단 한 건의 기사만이 해외 사드 반대

〈그림 3〉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해외 사드 배치 반대관련 기사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합산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거례의 길 민족광장,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바른불교재가모임, 성주불교사암 연합회, 신도회(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부산행동, 한국대학생연합, 유림단체, 8.15반전평화대회 추진위원회의,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회, 2016통일대행진단, 300인 서울평화회의, 평화통일 시민연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코리아 연대가 있었다.

의견을 보도하였는데 반해, 7월과 8월에 각각 11건과 21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외국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하였다.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들은 『우리민족끼리』보다는 『로동신문』을 통해 더욱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 차이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정부발표나 민간단체의 성명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이 국가들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소개하는 기사를 각각 19건, 18건, 14건씩 보도하였다. 이는 전체기사 중 22.3퍼센트, 21.1퍼센트, 16.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당 기사들은 주로 각 국가의 외교부나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이나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반대 입장을 인용하였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한 기사들은 대부분 외교부를 통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성명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매체는 중·러 양국이 한반도 내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무기체제로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들을 주로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드 배치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여론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과 스위스를 언급한 기사들의 경우, 두 국가 내 북한 이민자 혹은 북한 관련 단체들이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진행한 시위나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밖에도, 홍콩,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반대여론과 브라질, 이란, 독일, 베네수엘

라, 프랑스 등 한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직접적 안보 불안을 겪고 있지 않은 국가들 내의 반대 의견도 보도하였다.

〈표 3〉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의 사드 반대 기사 관련 국가별 인용 횟수
(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¹⁸⁾

국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중국	2	1	-	-	-	6	9	1	19
러시아	3	1	-	-	-	4	9	1	18
미국	-	-	-	-	-	3	6	5	14
스위스	-	-	-	-	-	4	2	1	7
홍콩	-	-	-	-	-	1	1	1	3
일본	-	-	-	-	-	-	2	1	3
브라질	-	-	-	-	-	-	1	1	2
이란	-	-	-	-	-	-	1	1	2
독일	-	-	-	-	-	-	2	-	2
베네수엘라	-	-	-	-	-	-	1	1	2
프랑스	-	-	-	-	-	1	1	-	2
기타	-	-	-	-	-	1	4	6	11
총계	5	2	0	0	0	20	39	19	85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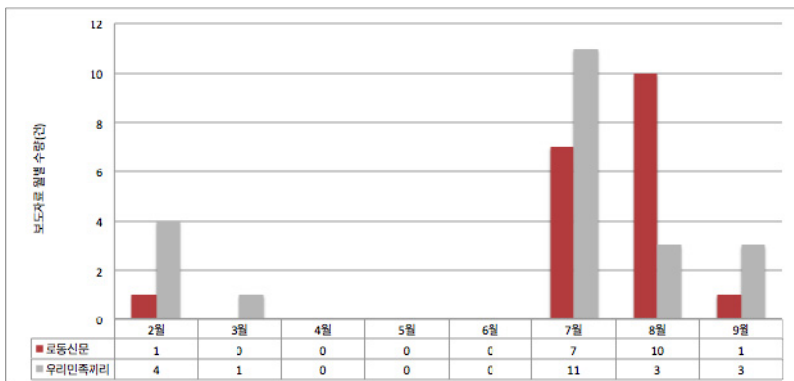
3.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관련 기사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국내와 국외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에 대한 기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나타내듯이, 『로동신문』은 19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는 22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18) 기타 국가로는 터키, 영국, 방글라데시, 모리타니, 체코, 뉴질랜드, 호주, 시리아가 있었다. 특정 국가를 밝히지 않은 채,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언급한 사례도 기타로 처리하였다. 또한 한 기사 내에 여러 국가가 동시에 언급된 경우 중복하여 합산하였다.

북한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전체 기사 중 각각 15.0퍼센트, 12.3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두 매체에서 보도한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전쟁을 도발하여 세계 패권 획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다. 둘째, 미국 주도 하의 사드 배치를 수락한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과 경고이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북한의 시각에서 해석된 내용으로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속어와 선정적 표현을 통해 감성적이고 자극적이며, 때로는 풍자적으로 서술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기사들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7월 8일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7월과 8월에 걸쳐,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7건과 10건, 11건과 3건의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였다.

<그림 4>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기사(2016년 2월 7일 ~ 2016년 9월 9일)



출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해당월

IV. 사드 배치 관련 북한 보도의 전략적 함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2월에서 9월에 걸쳐, 『로동신문』과 『우리 민족끼리』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해왔다. 이 기사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응과 그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한국 내 반대 여론 과장을 통한 사드 배치의 부당함 선전 및 대외 선동

먼저, 북한은 한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가 민의와 대치되는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중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관련 기사 중 50퍼센트 이상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내 여론을 소개하는 데에 할당하였다. 특히 두 매체는 모두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사드에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과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한겨레』 등 진보언론의 기사를 주로 인용하였고,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국내 언론매체 및 단체의 의견을 인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국내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반수의 한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⁹⁾

19)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국내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소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67.1퍼센트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였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7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0퍼센트의 조사대상자가 사드 배치에 찬성의사를, 32퍼센트가 반대이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시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반대 의견(45.8%)이 일시적으로 찬성 의견(4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8월 한국갤럽이 다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56퍼센

북한의 보도행태는 한국 내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보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7월 15일자 『로동신문』은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지역에 미국의 살인 장비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한 박근혜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를 두고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고 보도하였고(로동신문 2016/07/15), 7월 21일자 기사는 “온 남조선 땅이 증오와 분노의 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한 괴뢰집권세력을 단죄 규탄하는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심철영 2016). 또한 7월 22일자 기사에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경향신문》, 《한겨레》, 《민족일보》, 《C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싸드》배치의 본질과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괴뢰패당의 사대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로동신문 2016/07/22).

이와 같은 사드 반대 국내여론에 대한 기사는 『우리민족끼리』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2월 22일자 『우리민족끼리』기사는 “《싸드》배치를 반대하여 남조선사회 각계, 각 지역들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며(우리민족끼리 2016/02/22), 7월 16일 기사와 9월 6일 기사는 각각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소개하며 “현 보수당국은 이러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리적단체》, 《중북》으로 몰아붙이고 파썸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싸드》배치철

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9월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58.8퍼센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조사기관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배영경 2016; 황형준 2016; 조의준 2016).

회 전국 50개 도시 동시다발평화행동》 집회를 비롯하여 남조선사회 각계, 각 지역인민들의 투쟁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7/16; 김철 2016). 그러면서 “현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기어코 결정 한데는 《북핵, 미사일 위협설》과 《안보》문제를 부각시켜 보수층을 재규합하여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고 앞으로 보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흥심”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류성 2016). 즉, 북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으로, 그 목적은 이른바 ‘북풍’을 일으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를 비교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을 소개하는 기사들은 『로동신문』보다 『우리민족끼리』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이 기사들이 북한 내부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 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2. 해외 사드 반대 여론을 통한 고립국가 이미지 탈피 및 사드 반대 정당화

북한은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보도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자신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사드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이 국가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본다(리경수 2016; 리현도 2016b; 우리민족끼리 2016/02/21).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과도 유사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언론은 실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즉, 현재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국제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은 2월 11일 기사를 통해 “로씨야 《페웨 쟈뜨르》 TV는 미국이 《조선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는 로씨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까밝혔다”고 하였으며(리현도 2016a), 3월 3일 기사를 통해 “중국 외교부장과 로씨야 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싸드》의 남조선배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였다(리경수 2016). 또한 『우리민족끼리』도 2월 13일에 2편의 기사와 2월 25일 1편의 기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반대 의견을 소개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2/13; 우리민족끼리 2016/02/25).

이와 같은 기사들은 외국인을 겨냥한 『우리민족끼리』보다 조선로동당 당원들을 주된 구독층으로 하는 『로동신문』에 더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해외의 사드 반대 의견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내부적으로 퍼뜨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탈을 방지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목적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내부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의 내부적 불안정성은 일정 수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국외의 여론 역시도 북한 당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해외 사드 반대 여론이 『우리민족끼리』보다 『로동신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입장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 왜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도 한국이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堅決反對)”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드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張程 2016).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장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핵개발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 결과, 『로동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리롭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측의 노력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고만 보도하였을 뿐, 비핵화와 관련된 중국 대변인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로동신문 2016/07/15). 이러한 현상은 7월 11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

다(辛聞 2016; 로동신문 2016/07/17). 즉, 북한은 해외의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적으로 선택하여 왜곡 보도함으로써,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탈피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사드 반대를 통한 중·러 공조 회복 및 핵 보유의 정당성 확보

북한은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대내적으로 자신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 두 매체에서 북한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굴종”하여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살”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로동신문2016/07/11; 라설하 2016; 리효진 2016). 즉, 북한은 미국이 사드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역시도 중국,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3월부터 사드와 관련된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가 급격히 줄어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다가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북한의 다른 매체인 『통일신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사드 배치를 주제로 다른 기사가 나타나

지 않던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3월 4일 사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그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정용수 2016), 4월 12일, 존 케리(John F. Kerry) 미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히는 등(이승현 2016),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단 한 편의 사드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당시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3월 2일에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 2270호의 채택에 동의하였다. 사드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공동으로 반대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예를 들어, 4월 22일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김덕현·이중삼 2016). 또한 4월 27일에는 한중 외교부 장관이 만나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의 위협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곽정일 2016a). 6월 13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을 받아 처음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곽정일 2016b).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점차 외교적으로 고립되어갔다. 심지어는 3월 말, 산케이 신문이 입수한 북한내부 문서에는 중국이 대북제재 안에 찬성한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배신한 중국의 압박을 핵폭풍으로 부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조준형 2016). 이와 같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강화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을 배제한 채 양국간의 사드 반대 공조를 점차 형성해갔다. 3월 7일, 중국과 러시아는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처음으로 사드 반대 공식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으며(葉秋瞳 2016), 4월 29일에도 양국의 외교부장과 외무장관이 만나 사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시사하였다(賈元熙 2016). 5월 4일에는 양국이 처음으로 미사일방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고(屠麗美·郭媛丹 2016), 6월 말, 방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예영준 2016).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전통적 북방삼각관계에 균열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이에, 2015년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속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내수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노동력 동원조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월 24일부터 북한은 5월 30일에 열릴 제7차 당 대회까지 약 70일 간의 일정으로 ‘70일 전투’를 실시하여, 대학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또한 그 후에는 제7차 당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²⁰⁾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를 통

20)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종규(2017, 27-39)의 연구가 있다.

해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내적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은 사드 관련 보도가 중단되었던 4월에서 6월 사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와 관련된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로동신문』은 월별 총 1,017건, 1,089건, 1,140건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중 두 경제조치와 관련된 기사는 각각 408건, 284건, 367건으로 전체 기사들 중 각각 40.1%, 26.1%, 32.2%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대외적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관련 기사가 세 달 모두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즉,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는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인 것이다. 그러던 중, 7월 8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을 기회로 삼아 사드 배치를 대대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나아가 북한은 사드 배치를 구실로, 자신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사드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배충일 2016; 우리민족끼리 2016/07/27). 또한 한미 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 26일 『로동신문』 기사는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이 벌리고 있는 침략적인 《싸드》의 남조 선배치책동”이 “핵 선제타격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협천만하고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망동”이며,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부단히 강화해온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전쟁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당당한

자위적조치”라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2016/08/26). 또한 7월 30일 『우리민족끼리』기사는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계속 개발 완성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7/30).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억제함으로써, 북한 인민들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의 “생존과 운명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우리민족끼리 2016/07/29). 즉, 북한은 사드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위협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공세적 정책에서 찾음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선제공격과 한국의 흡수통일 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한국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핵 공격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당한 대응이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북한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의 보도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자 해왔으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동조하여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반대 의견을 고무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탈피하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한미의 공세적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강화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 9일에는 역대 최고 규모의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 핵실험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하운해 2016). 또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원 만장일치 동의 성명을 통해 북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국가로 여겨졌던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경제 보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신임 미국 대통령은 2000년도에 공개적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지지한 바 있다. 그의 내각도 강경파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내각 중 처음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 Mattis)는 4성 장군 출신으로 중부군사령관을 지낸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드가 대중 압박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중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본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친러 성향을 보인 트럼프가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강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존재한다. 동시에 한국의 국내정치 역시도 사드 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긴장은 꾸준히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 고 일: 2016년 12월 27일

심사완료일: 2017년 02월 06일

게재확정일: 2017년 02월 15일

참고문헌

- 고영대. 2015.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미-중 간 전략안정 흔들기: 논단과 현장.” 『창작과 비평』 43(3): 554-565.
- 곽정일. 2016a. “윤병세 외교부 장관, 北 핵 프로그램 포기 강조.” 『아시아뉴스통신』 (4월 28일).
- 곽정일. 2016b. “한-러 외교장관 회담 ‘北핵 공조 강화’.” 『아시아뉴스통신』

(6월 14일).

- 김덕현·이중삼. 2016. “한중 6자 수석 “북한 추가 핵실험 땀 추가적인 중대 조치.” 『연합뉴스』 (4월 23일).
- 김용현. 2003.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107-127.
- 김일성. 198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0.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 운영을 개선 하자.”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지동·한관수. 2013. “북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의 의도와 행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7: 327-346.
- 김진호. 2016.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야기한 한반도 안보 환경변화와 한-중 관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501 (검색일: 2016.10.14).
- 김정일. 198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철. 2016. “《싸드》배치반대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남조선의 성주와 김 천.” 『우리민족끼리』 (9월 6일).
- 김태우. 2015.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JPI정책포럼』 2015(10): 1-25.
- 김한권. 2016. “한국 내 THAAD 배치에 관한 한-중 이해관계의 모순.” 『IFANS FOCUS』 2016(39K): 1-7.
- 김흥규. 2016a.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25(1): 25-58.
- 김흥규. 2016b. “사드 문제와 북중관계.”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503&code=archive&scode=&ref=5503 (검색일: 2016.10.14).
- 라설하. 2016. “력사는 핵범죄자들의 정체를 고발한다.” 『로동신문』 (7월

16일).

『로동신문』. 2016/07/11. “우리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로동신문』. 2016/07/15. “현대판 《을사오적》들의 만고죄악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2016/07/17. “중국 외교부대변인 자체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

『로동신문』. 2016/07/22. “남조선 각지에서 《싸드》배치반대투쟁 광범히 전개.”

『로동신문』. 2016/07/24. “박근혜 역적패당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2016/08/26. “온 민족은 미국의 추악한 핵전쟁사 환군인 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류성. 2016. “무너지는 발판, 스스로 초래한 결과.” 『우리민족끼리』 (7월 22일).

리경수. 2016. “누구를 겨냥한 《싸드》배비인가.” 『로동신문』 (3월 3일).

리현도. 2016a. “미국의 무력증강의 본질을 꿰뚫어보아야 한다.” 『로동신문』 (2월 11일).

리현도. 2016b. “핵광신자들의 망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로동신문』 (7월 18일).

리효진. 2016. “친미 매국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 『로동신문』 (8월 7일).

박근재. 2016.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23(1): 37-66.

박병광. 2016. “중(中), 한반도 사드 배치 제2의 쿠바 미사일사태로 인식?.” 『통일한국』 387: 30-31.

박휘락. 2016.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의 적용.” 『국제관계연구』21(1): 33-63.

배영경. 2016. “갤럽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0% vs 반대32%.’” 『연합뉴스』 (7월 15일).

- 배충일. 2016. “대재앙을 몰아오는 청와대 마녀.” 『우리민족끼리』 (7월 24일).
- 백인학·홍민식·김승채. 2001. “김정일 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분석: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5(1): 83-124.
- 송승섭·정종기. 2014.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48(1): 237-256.
- 심철영. 2016. “외세의 패권전략에 추종하는 매국역적 행위.” 『로동신문』 (7월 21일).
- 예영준. 2016.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공동성명 푸틴·시진핑, 사흘 새 두 번 발표.” 『중앙일보』 (6월 27일).
- 『우리민족끼리』. 2016/02/13. “로씨야 ≪싸드≫배치는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것이라고 강력히 경고”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05633> (검색일: 2016.10.09).
- 『우리민족끼리』. 2016/02/13. “중국 ≪싸드≫배치협상을 강력히 반대.”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05633> (검색일: 2016.10.14).
- 『우리민족끼리』. 2016/02/21. “≪싸드≫배치는 백해무익한짓.”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05966> (검색일: 2017.02.07).
- 『우리민족끼리』. 2016/02/22. “≪싸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외여론의 목소리(1).”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05633> (검색일: 2016.10.09.).
- 『우리민족끼리』. 2016/02/26. “≪싸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외여론의 목소리(3).”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06197> (검색일: 2017.02.07.).
- 『우리민족끼리』. 2016/07/16. “도탄에 빠진 민생, 그 원인, 그 주범.”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4044&pagenum=62> (검색일: 2016.10.09).

- 『우리민족끼리』. 2016/07/27. “《싸드》배치에 깔린 범죄적 목적과 후과 (1).”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4796> (검색일: 2017.02.07).
- 우정엽. 2015.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 (검색일: 2016.10.14).
- 이승현. 2016. “케리 美국무장관 "유엔 결의안 넘어선 추가 대북제재 가능.” 『동아일보』 (4월 12일).
- 이종규. 2017.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평가 및 2017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7-39.
- 이지용. 2016.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IFANS FOCUS』 2016(03K): 1-4.
- 이항동. 1997.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한정책의 변화:1987-1996.” 『한국정치학회보』31(4): 131-160.
- 정성임. 2009. “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통일문제연구』21(2): 245-290.
- 정용수. 2016. “국방부 "사드 배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중앙일보』(3월 4일).
- 정육식. 2003. 『미사일방어체제(MD)』. 서울: 살림.
- 조의준. 2016. “핵무장은 51.5%, 사드배치는 58.8%가 찬성.” 『조선일보』(9월 26일).
- 조준형. 2016. “산케이 ‘北 내부문서에 ‘中압박 핵폭풍으로 부수자’ 명기.’” 『연합뉴스』(3월 28일).
- 평양출판사. 1978. 『백과전서 6권』. 평양: 평양출판사.
- 하운해. 2016. “박 대통령-오바마 긴급 통화 ‘모든 수단 동원 北 압박.’” 『국민일보』 (9월 10일).
- 한국언론연구원. 1989.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홍규덕. 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22(4): 110-134.

홍민식. 2001. “김정일 정권의 북-러 관계 (1994-2000):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 159-171.

홍순도. 2016.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 파국 지름길.” 『시사저널』 (2월 23일).

황형준. 2016. “사드 배치 찬성 56% 반대 31%…찬성 지난달보다 6% 상승.” 『동아일보』 (8월 12일).

辛聞(신원). 2016. “外交部:薩德"嚴重損害中方利益 中方將採取措施.”
http://news.china.com.cn/world/2016-07/11/content_38857109.htm
(검색일: 2017.02.05.).

葉秋曠(예치우통). 2016. “中俄堅決反對美韓推動在韓部署'薩德'.” <http://www.chinanews.com/gj/2016/03-07/7787463.shtml> (검색일: 2016.10.02).

張程(장청). 2016. “韓美決定部署薩德反導系統 中國外交部強烈敦促停止.”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60708/1222855.shtml> (검색일: 2017.02.07).

賈元熙(지아위엔시). 2016. “外媒:中俄外長反對在韓部署'薩德'反導系統.”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60430/1145815.shtml>
(검색일: 2016.10.30).

屠麗美(투리메이)·郭媛丹(구어위엔단). 2016. “專家解讀中俄聯合反導演習 中方壹裝備俄軍沒有.”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6-05/8851725.html> (검색일: 2016.10.20).

Althusser, Louis.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1961.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Kim, Jack. 2016. “South Korea, U. S. to Deploy THAAD Missile Defense, Drawing China Rebuke.”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

usa-thaad-idU SKCN0ZO084 (검색일: 2016.10.20).

Internet World Stats. 2016. “North Korea: Internet usage, broadband and telecommunications reports.” <http://www.internetworldstats.com/asia/kp.htm> (검색일: 2016.10.17).

NK News. 2015. “Who Reads North Korea's Rodong Sinmun Newspaper?.” <https://www.nknews.org/2015/10/who-reads-north-koreas-rodong-sinmun-newspaper/> (검색일: 2017.02.0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Resolution 2270 (201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638th meeting, on 2 March 2016.”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검색일: 2016.10.09).

Yang, Sung Chul. 1994.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Seoul: Seoul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SON Daekwon, AHN Seul Ki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AAD-related news articles reported in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from February 7, 2016 to September 9, 2016. As a result,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are found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yongyang, by extensively covering anti-THAAD rallies held in South Korea, attempts to propagate a perception that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unjust and wrongful. Second, Pyongyang, through condemning the THAAD deployment, domestically struggles to break away from the image of being isolated. Third, by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the United State's means of invading North Korea and maintaining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yongyang seeks to restore an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ternationally, justify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o win a nuclear power statu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words: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Rodong Sinmun*, *Uriminzokkiri*, North Korea, media coverage